

LAMP (Love Africa Mission Project)

-김광락, 조성라, 주은, 시은, 고은이의 남아공 선교편지(3)

이메일 : revkimgl@hanmail.net (김광락)

africa1004@ymail.com (조성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베히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띠를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오신 공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벧전1:1-4)

선 교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오래 사역하면서 해외 전도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잠시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잠시 맛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낯선 사람들 틈 속에 살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이 '살아남기' 시리즈입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남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 나님의 은혜로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란 도시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신학을 배우고 삶을 나누었던 김경열 선교사님 댁에서 저희 다섯 가족이 머물면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장을 가고 선교지를 둘러보는 등 어느 하나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동안 집을 보러 다니느라 한참 답답해하고 신경 쓸 때 마침 한국에서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자에게 인색하시고 너그러운 자에게 너그러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줄 때 받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남 아공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를 가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누가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자동차에는 큼지막한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집 안에도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이사를 왔는데 열쇠에 사는 아프리카인 백인 아줌마는 우리를 향해 경계하는 눈빛을 계속 날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아무것도 모른채 저희 가족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장난기 어린 말을 걸어왔습니다. 흑인을 만나건 백인을 만나건 저희로서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본 문에서 베드로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합니다. 본토인은 결코 당하지 않을 서러움과 차별과 불이익을 외국인들은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이미 우리의 신분은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저런 서러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살아남아야 하는 부담이 훨씬 더 큼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늘에 엄청난 보배들을 간직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사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쇼상구베에 있는 에벤에셀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가 있었는데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된 사역이 될 흑인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 사역인 ABBA(Africa Bible Based Academy) 모임에 강사로 허입이 되어 곧바로 ABBA 컨퍼런스를 함께 섬길 수 있었습니다. ABBA 사역에는 15명의 선교사가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데 특이한 점은 흑인들을 모아서 사역하는 종전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직접 강사가 찾아가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건물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독특한 방식의 학교로서 이곳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역입니다. 또한 한국인 선교사들이 함께 팀사역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사역입니다. 저

는 프레토리아에서 동쪽에 있는 흑인 밀집구역인 마멜로디(Mamelodi)란 지역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흑인 목회자들은 정규적인 신학훈련을 거의 받지 못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이 저의 주된 사역입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흑인 지역인 마디베스타드(Mathibestad), 쇼샹구베(Soshanguve)AA, 지역도 돌아보면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마디베스타드 지역에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마멜로디 지역에서 15명 정도의 흑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3-4시간 동안 영어로 교회사를 강의하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제 생일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늘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5회 ABBA 컨퍼런스에서 점심식사 대접하기 (2009.4.12)



쇼샹구베 에벤에셀 교회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 (2009.4.12) 주일출석을 열심히 하면 많은 상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지인 음식 (의외로 맛있습니다.)



제5회 ABBA 컨퍼런스에서 강사 소개하는 시간 (2009.4.18 마멜로디 교회)



마디베스타드에서 모꾸모 목사와 함께(4.25) 가난하지만 확실한 거듭남의 체험과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는 흑인 목사입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저는 건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곳에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될 것입니다!



쇼상구베 에벤에셀 교회 전교인 소풍(4.28)



아멘교회에서 배운 신발 던지기 게임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쇼상구베AA 지역교회에서 주일설교(2009.5.10)



참고로 5월 9일은 제이콥 주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이면서 어머니의 날(Mother's Day)입니다. 이 날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시골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마멜로디 지역 신학(교회사)강의 (2009.4.26~)



제 영어는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을 손을 놓은지라 아주 엉망이지만 이분들은 서너 시간 동안 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회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도 배우지도 못한 과목입니다. 2000년 교회를 배움으로써 이분들이 지역교회를 건강한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후는 한국의 가을과 같습니다. 공기와 날씨는 깨끗하고 쾌청합니다. 다만 한국보다 많이 건조한 편입니다. 강도에 대한 불안은 한국보다 훨씬 심한 편이지만 아이들은 이곳에서의 삶을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비해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은 것 같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영어공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직 서너 시간 동안 영어로 신학을 강의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곳 현지인의 말을 배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가족의 건강은 매우 양호합니다. 음식도 중국인 가게에서 중국산 쌀을 사서 한 두 끼는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과일과 고기는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다만 공산품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11년간 이곳에서 사업하다 한국으로 철수하신 분의 자동차와 가구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착하는데 매우 사소한 것까지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곳에선 외국인이라 더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집세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차별받는 부분이 적지 않아 때로는 서럽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서바이벌 전투와 같이 살아남기의 연속이고 긴장의 연속이라 저녁이 되면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모로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2. 마멜로디 지역에 부흥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3. 마디베스타드 지역에 새로운 예배당을 은혜 중에 잘 건축할 수 있도록
4. 가족의 비자문제와 아이들의 학교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5. 불안한 치안과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도록

※파송교회 및 선교단체

*대구아멘교회-www.dgamen.kr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295번지 (담임 최봉우 목사)

*한국기아대책기구-www.kfhi.or.kr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111번지

❖연락처

P.O.Box (사서함 주소)

1175 Garsfontein Pretoria, RSA 0042

셀폰

001-27-79-018-7009(김광락)

001-27-79-018-7007(조성라)

이메일

revkingl@hanmail.net

africa91@ymail.com

(*저희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아직 집전화와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개통과 계좌개설은 앞으로 최소한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